

『직지』의 선사상과 그 의의

김종명*

머리말

이 연구의 목적은 『직지』에 나타난 선사상의 내용을 검토·분석하고, 이를 통해 역사적, 사상사적, 선문헌학적 의의를 중심으로 이 책의 고려(高麗, 918-1392) 후기에 있어서의 선사상사적 의의를 검토하는데 있다.

『직지』는 1372년 고려의 선승 백운경한(白雲景閑, 1289-1374)이 편찬한 선문헌이다. 이 책은 백운이 중국의 석옥청공(石屋淸珙, 1272-1352)으로부터 역대 불조사들의 어록을 수록한 『불조직지심체요절』 1권을 1351년에 얻어와 그 내용 가운데 중요한 대목을 초록하고 증보한 후, 손으로 직접 써서 상·하 양권으로 재편집한 것으로서, 그는 이 책에서 "여운"(如云) 또는 "사왈"(私曰), 또는 "염운"(拈云)으로 시작하는 자신의 해설들을 20 곳에 걸쳐 부가하고 있기도 하다. 과거 7 불(佛)과 인도의 28 조사(祖師) 및 중국과 한국의 110 선사 등 145 가(家)의 법어를 채록하여 모두 307 편으로 구성한

『직지』의 체제는 상·하 2권 2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의 끝 부분에는 이 책이 인쇄된 연도와 관계자들의 이름, 직책 등이 명기되어 있다. 특히,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장서각본과 국립중앙도서관본 『직지』에는 성사달(成士達?, ?-1380)이 1377년에 쓴

「불조직지심체요절서」(佛祖直指心體要節序)와 이색(李穡, 1328-96)이 1378년에 쓴 「불조직지심체요절서」 및 백운이 직접 쓴 발문도 첨부되어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 금속활자본으로 공인된 『직지』는 청주에 위치해 있던 흥덕사에서 1377년에 백운의 제자들에 의해 인쇄되었는데, 2001년에는 유네스코(UNESCO)에 의해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도 등재되었다. 이 책은 현재도 한국승단의 수의과(叟意科)의 대표적 교재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그 동안 『직지』에 대한 번역본들도 출간되어 왔으며, 이 책 및 백운의 삶과 사상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이 책의 인쇄문화적 중요성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러나, 『직지』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서지학적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직지』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국내의 평가도 가히 국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여서,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대두 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더욱이, 유네스코가 『직지』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한 이유는 『직지』가 가진 내용의 중요성과 학술적 가치 및 보존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직지』의 내용 자체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둔 연구업적은 글쓴이가 아는 한 아직은 없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나, 직지의

내용상의 특징과 선문헌에 대한 한국승단의 기존 태도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직지』의 반 이상은 선어록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만을 발췌한 것이어서 그 내용은 간결하지만, 자세한 설명은 되어 있지 않다. 이 책의 내용도 대부분 고도의 은유성을 지닌 공안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함의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며, 선종의 전등사서에 이미 실렸던 것들이기 때문에 별로 새로운 자료가 되지도 못한다. 또한, 이 책은 상·하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권의 내용 상의 뚜렷한 차이도 발견되지 않으며, 각 권의 내용들이 시대별로 전개되어 있지도 않다. 더욱이, 단락 구분도 명확하지 못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학자, 사서, 승려 등에 의한 『직지』의 번역서들이 몇 종류 출판되었으나, 학자와 사서 등은 선의 내용을 잘 몰라서 직역을 한 경향이 크며, 승려들은 불립문자(不立文字)에 구애되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더욱이, 선 전통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은 고명한 조사나 선사들이 설한 화두나 말씀은 모은 어록을 함부로 해석하거나 풀이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심지어는 부처에 대한 불경죄라고까지 생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직지』의 내용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백운 스스로도 직지의 여러 곳에서 특정 공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듯이, 기존의 이러한 시각은 당연히 재고되어야 한다. 또한, 『직지』의 내용은 편찬자인 백운의 선사상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주목하여 이 논문의 주제를 분석하기로 할 것이며, 이 논문은 이러한 측면에서는 최초의 학문적 탐구의 산물로 생각된다. 앞에서 언급한 『직지』의 한계성을 염두에 두고, 여기서는 『직지』의 선사상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세하게 검토·분석한 후, 그 사상사적 의의를 검토할 것이다.

『직지』는 금속활자본과 목판본의 2 가지가 있다. 전자는 1377년(우왕 3년) 흥덕사(興德寺)에서, 후자는 1378년(우왕 4년) 여주의 취암사(鷲植寺)에서 간행되었으며, 현재 흥덕사 금속활자본 1 종과 취암사 목판본 2 종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흥덕사 금속활자본은 상·하 양권 중 상권은 현존하지 않으며, 하권은 1 장이 없어진 채 현재 프랑스의 국립도서관(La Bibliotheque nationale de France)의 동양문헌실에 보관되어 있는데,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은 바로 이 것이다. 반면, 취암사 목판본 2 권 2 책 완질은 국내에 전래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직지』의 선사상을 검토할 때 이용될 일차자료는

『한국불교전서』 제 6 책에 수록된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상·하권이며, 『직지』의 선사상을 분석할 때는 같은 책에 실린

『백운화상어록』(白雲和尚語錄) 상·하권도 이용될 것이다.

1. 『직지』의 선사상 검토

1. 상권의 내용

상권은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부분은 인도 불조사들의 선어를 다루고 있으며, 둘째 부분은 중국의 그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1) 인도 불조사들의 선어

과거불로는 비바시불로부터 가섭불까지를 다루고 있다. 이 부분의 주제 중 가장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은 존재의 무상함과 공함에 대한 것인데, 비바시불, 과거장엄겁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손불 및 제 3 조 상나화수 존자부터 제 7 조 바수밀 존자의 선어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혜 얻음의 중요성과 중생 성품의 청정성도 주장 되고 있다. 특히, 역사적 부처인 석가모니불 편에서는 그의 득도 상황, 그와 그의 제자 가섭과의 이심전심을 상징하는 연화시중의 미소, 그가 회중들에게 강조한 분별심 제거의 중요성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어서 제 2 조 마하가섭부터 제 14 조 용수 존자까지의 주제는 분별심 제거, 존재의 본성은 공(空)함, 존재의 불이성(不二性) 등이 주요한 주제들로 나타나는데, 특히, 불이성의 강조가 두드러진다. 따라서, 인도 불조사들의 선어가 기술되어 있는 여기까지의 주요 주제들은 무상, 공, 불이성, 청정불성, 지혜, 분별심 제거 등으로 요약된다.

(2) 중국 조사들의 선어

인도의 불조사들에 이은 상권의 둘째 부분에서는 중국 선사들의 선어를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언설에 집착하지 말 것

남전은 부처와 보살의 음성, 즉 불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분주는 약간의 정념도 남아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서산 양은 24 분의 경론을 강의하다가 마조를 만나 선에 몰입하게 되었으며, 석두는 말이나 형상에 묶이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위산은 개념에 묶이지 말 것을 주장하였으며, 조주는 대장경에도 얽매이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조과는 불교의 가르침은 말로써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였으며, 『열반경』을 강의하던 대원부는 선객의 조언으로 정좌 끝에 깨달음 얻었다고 한다. 섭현성은 이름과 글귀에 묶이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장사잠도 이름에 묶이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마곡도 깨달음은 경론에 있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2) 마음 수행의 중요성

반산은 삼계도 마음의 산물임을 주장하였고, 대주는 각자의 마음이 보물임을 마조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았다고 한다. 조주는 깨달음은 흉내를 내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상심을 유지하는 데서 가능하다고 하였다. 마음 수행

이외에는 관심을 두지 말란 가르침도 강조되었는데, 조주는 돈에 관심을 두지 말 것을, 중국사는 타심통으로 속이지 말 것을, 혜안은 성별이나 나이는 깨달음과 무관함을 각각 강조하였다.

3) 일체 성불설

중국사는 담벼락과 기왓장도 부처라고 주장하였는데, 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백운은 담벼락과 기왓장에도 불성이 있음을 비유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나안도 각자가 가진 큰 광명을 깨달으면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4) 존재의 공함 및 불이성 이해의 중요성

무업은 대상 혹은 경계의 공함을 강조하였으며, 약산은 유위(有爲)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모든 존재는 공하기 때문에, 이분법적 사고 방식으로 존재를 파악하는 것도 배제되었다. (몽산)도명은 노행자[혜능]로부터 선악에 대한 분별심도 버리고, 본래면목을 탐구하도록 지도 받은 후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유관도 중국 당대의 유명한 문필가 백거이에게 분별심을 없앨 것을 강조하였으며, 무주는 두 상공에게 『법구경』을 인용하여 계·정·혜 삼학을 가르치면서, 그것들이 하나도 아니며, 셋도 아니라고 하였다.

5) 지혜 얻기의 중요성

특히 귀종의 선어를 인용하여, 초심자들이 도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관음의 현묘한 지혜의 힘임을 강조하고 있다.

6) 조사선(祖師禪) 강조

휴정이 현자를 시험한 데 대해, 백운은 이 대목이 소리와 빛깔과 언어를 갖춘 것이 조사선임을 비유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직지』 상권에서 중국 조사들의 선어를 통해 나타난 선사상의 주요 주제들은 언설에 집착하지 말 것, 마음 수행의 중요성, 일체 성불설, 존재의 공함 및 불이성 이해의 중요성, 지혜 얻기의 중요성, 조사선 강조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들 중에서도 언설에 집착하지 말 것이 특히 강조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직지』의 상권에 나타난 핵심 주제어들은 무상, 공, 불이성, 청정불성, 평상심, 언설 집착 배제 등으로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이론적으로는 존재의 공함을 알 것과 이를 체득하는 방법론으로는 언설에 묶이지 않는 것이 특히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2. 하권의 내용

하권에는 13세기까지 활동한 중국 선사들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호대의로부터 천복승고에 이르기까지의 선사들의 선어들 중 선의 요체를 깨닫는데 필요한 정수를 뽑아 수록하였다. 그 내용은 아호대의의 좌선명을 시작으로 하여 65명의 조사들의 계송과 범어, 등등이 심경의 오묘함을 읊은 료원가(了元歌) 2수, 양 보지(梁寶誌)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노래로 표현한 찬송 10수, 지공(誌公)의 불이송(不二頌) 14수, 경론을 인용한 공의 강조, 동산양개가 출가하면서 자신의 어머니께 올린 편지 2편과 어머니의 답신 1편, 마음과 무심과 옛 가르침을 강조한 선승 3명의 계송 및 근기별 해탈 기간에 대한 승고의 설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권의 중심 주제는 깨달음의 계기가 된 예들, 수행방법론, 언설에 묶이지 말 것, 분별심 제거, 일상행의 중요성, 공사상 강조, 선교일치설, 실유불성설(悉有佛性說), 돈오(頓悟)·조사선·깨달음의 기간, 계율관·염불관, 보임등이다.

(1) 깨달음의 계기

선사들이 깨달은 계기에 관한 선어들은 『직지』의 하권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내용은 은유와 추상적 비유가 많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불이성과 존재의 공함, 분별심 제거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계침이 범안에게 "산하와 대지가 두 개"라고 한 소리에 범안은 깨달음을 얻었으며, 범안이 승록에게 "범좌 설치와 선지식 참견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에 승록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이러한 예는 석상과 나산, 지장과 범안, 지장과 소수, 범안과 자방, 현정과 어떤 화엄승, 보수와 두 승려, 덕산과 고정간, 운문과 동산, 수룡과 청할, 낭아와 장수, 약산과 우적 등의 대화에서도 나타난다.

(2) 수행의 강조와 방법론

수행의 강조와 방법론에 대한 설명도 『직지』 하권의 중요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실례들은 다음과 같다: 아호대의는 각자 자신에게 맞는 최상의 수행방법론을 택할 것을 주장하면서, 좌선을 통해 존재의 연원을 참구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백장은 위산에게 수행을 철저히 할 것을 가르쳤다. 한편, 잠만 자던 암두는 좌선만 하던 설봉에게 좌선만이 유일한 수행법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보지는 큰 도리란 수행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수행에 대한 설법은 단지 범부를 위한 방편에 불과함을 주장하면서, 실체로서의 수행에 매이지 말라고 하였다. 자명은 양기회에게 스스로 깨달으라고 하였으며, 운암도 동산 양개의 "남을 따라 찾지 말라"라는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범안은 어떤 승려에게 소리와 색깔의 뜻을 아는 것이 소리와 빛깔을 체득하는 가득 쉬운 방법이라고 하였으며, 규봉은 망념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상의 수행법이라고 주장하였다. 백장은 고령에게 허망한 인연을 없애는 것이 부처가 되는 길임을 가르쳤다. 몽산은 삼매를 통해 전생의 습기를 제거하면 참 지혜가 생긴다고 하였으나, 대중들에게는 단바라밀을 통해 무상보리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또한, 어떤 고덕도 아상을 없앤 후 지혜를 얻는 것이 첩경이라고 하였다.

(3) 말과 글에 얽매이지 말 것

언설에 묶이지 말라는 주제는 『직지』 상권에 이어, 하권에서도 강조된 주제며, 그 대표적 실례들은 법안과 보은칙, 현사, 암두와 거둔, 동사와 양산, 암두와 설봉, 설봉과 신안, 덕산과 용담, 미취와 영준, 지장과 보복, 수산, 법지와 신조, 파릉과 어떤 승려, 광효 안, 도오와 어떤 승려, 오공과 법안, 조산과 지의, 등등의 선어와 대화를 통해 발견된다.

(4) 분별심 제거

『직지』의 상권에서처럼, 하권에서도 분별심 제거는 강조되고 있으며, 그 실례들은 나산과 대중들, 법안과 소수, 지장과 소수, 양산과 미호, 운거와 어떤 승려, 현각과 어떤 승려, 석두와 대전, 천복과 상좌들, 몽산과 대중들, 보지, 지공, 등등, 거둔의 선어에서 주장되고 있다.

(5) 일상행의 중요성

일상적인 행위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도 하권의 중요 주제가 되고 있는데, 그 실례들은 천황과 용담, 분양과 대중들, 계침과 수산주의 대화에서 발견된다.

(6) 공사상 강조

공 사상의 강조도 하권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실례는 다음과 같다: 대주는 화엄(후정)에게 반야든 진여든 실체로 봐선 안됨을 강조하였으며, 낙보는 그의 부구가(浮垢歌)에서 거품과 물의 성품은 같으며, 자신의 몸은 공하다고 하였다. 보지는 하루 아침에 마음의 공함을 체득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직지』에서는 『미증유경』, 『능엄경』, 경명이 명시되지 않은 경전, 『대승기신론』 등의 경론을 인용하여, 살생의 업도 공하며, 보는 것과 그 보는 인연도 공하며, 아는 것의 본체도 공하며, 망념이 없어지면 경계도 없어진다고 주장하였다.

(8) 선교일치

하권에서는 선교일치를 강조한 부분도 나타나는데, 그 예는 파릉이 어떤 승려에게 조사의 가르침과 교학가의 가르침의 근원은 같으나 가지가 다르다고 한데서 발견할 수 있으며, 백운은 이를 "근원에 통달한 사람은 선도 교도 없다. 선과 교로 구분하는 것은 그것들에 집착하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을 비유한 것"이라고 하였다.

(9) 실유불성설

실유불성설의 예는 (학림)현소가 대중들에게 "불성은 평등하여 백정이라도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제도하면 된다"라고 한 데서 찾을 수 있다.

(10) 돈오·조사선·깨달음의 기간

조사선과 돈오는 『직지』 하권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양산은 향엄이 조사선 안 것을 기뻐하였으며, 법인은 원오가 조사선을 얻었음을 인가하였다. 그리고, 보지가 순간에 도를 얻을 수 있다고 한 데서는 돈오의 예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승고는 대중들에게 예리한 근기를 가진 사람은 한나절 정도면 해탈하고, 우둔 근기인도 3년-5년 정도면 해탈하며, 아무리 길어도 10년은 걸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11) 계율관 및 염불관

『직지』 하권에서는 선승들에게 요구되는 계율관과 염불관도 피력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 보지는 술과 고기와 다섯가지 매운 채소(마늘, 부초, 파, 달래, 흥거)를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깨달음을 얻는 데는) 남녀의 구분도 필요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입으로만 경론을 외워서도 안된다고 하였다.

(12) 보임

선사들은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자신의 그 경험을 대중을 향해 회향시키는 보임(保任)도 중요시 하였는데, 이러한 전통은 『직지』의 하권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그 실례는 다음과 같다: 위산은 영운에게 인연 따라 깨우친 도리를 잘 지킬 것을 당부하였으며, 백운 단은 깨달은 후에는 사람들과 조우해야 하나 당시는 그러한 사람이 없었음을 가엾게 여겼다. 그리고, 응암 화는 무심으로 중생을 제도 할 것을 강조하였다.

『직지』의 하권에서 다루어진 이들 주요 주제들 중, 깨달음의 계기가 된 예들, 수행론, 언설에 묶이지 말 것, 분별심 제거는 특히 많이 다루어져 상대적으로 강조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상·하권으로 구성된 『직지』의 핵심 내용은 깨달음의 계기가 된 예들, 수행과 관계된 선어, 언설에 묶이지 말 것(교외별전, 불립문자), 분별심 제거, 공사상 등이라고 할 수 있다.

II. 『직지』의 선사상 분석

『직지』에 나타난 주요 주제들은 무상성, 공사상, 불이성 파악, 분별심 제거, 불성청정설, 평상심 강조, 교외별전(敎外別傳)·직지인심(直指人心), 수행론, 선교일치설, 실유불성설, 돈오, 조사선, 계율론, 염불론 등이다. 이 주제들 중 대부분은 다른 선적에서도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것들이나, 『직지』에서 강조된 깨달음의 계기가 된 예들과 불이성, 분별심 제거의 강조, 수행론, 계율론,

염불론은 나름대로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직지』의 중심 주제는 "직지심체"다. "직지심체"란 "마음의 본체를 바로 지시하는 것"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직지』에서 불이성 파악 및 분별심 제거로 나타나고 있으며, 무념(無念) 혹은 무심(無心)으로도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직지』에서 강조된 다른 주제들은 바로 이 무념을 체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이 무념설 혹은 무심설 강조는 고려 후기에 편찬된 『직지』의 특징적인 선사상으로 간주되며, 이는 당시 불교계의 주류사상이었던 간화선 전통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 무념설을 중심으로 『직지』의 선사상을 분석하고, 수행론, 계율론, 염불론 등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자.

1. 무심설 혹은 무념설

선사들이 깨달은 계기에 대한 예들이 많이 수록된 『직지』의 선사상은 돈오→무심 혹은 무념 수행→증오(證悟)의 체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무심 혹은 무념에 대한 내용이 중심사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직지』에 나타난 선사상은 기본적으로 지눌의 돈오점수(頓悟漸修)설의 맥락 위에서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직지』의 전체 내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특정 선사가 깨달음을 얻은 계기를 나타낸 예들이다. 이는 이 책의 편찬자인 백운이 이 부분에 대한 강조를 통하여 이 책을 읽는 독자가 깨달음을 얻는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보지가 순간에 도를 얻을 수 있다고 한 데서는 돈오를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돈오는 존재의 본질에 대한 단박 깨달음을 의미하며, 그것은 증오(證悟)가 아니라, 해오(解悟)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직지』에서는 승고의 말을 인용하여, "예리한 근기를 가진 사람은 한나절 정도면 해탈하고, 우둔 근기인도 3년-5년 정도면 해탈하며, 아무리 길어도 10년은 걸리지 않는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실유불성(悉有佛性)설과 청정불성설을 통해 누구나 성불의 가능성이 있다는 대승불교의 전통설을 수용한다. 이를 바탕으로 존재에 대한 분별심을 제거함으로써 존재의 무상성, 공함, 불이성을 깨달으면 이상적 인격자인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론으로 평상심을 강조하며, 교외별전, 직지인심, 돈오를 모토로 하는 조사선을 수용한다. 그러나, 그는 조사선만 고집하지는 않았다. 조사선 전통과는 다른 선교일치설, 수행론, 계율론, 염불론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직지』에서 표현된 이들 다양한 사상 중에서도 가장 핵심 개념은 무념 혹은 무심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백운 자신의 선사상적 특징과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앞에서 논의된 것처럼, 『직지』에서 불이성 및 분별심 제거에 관한 공안들을 통해 이러한 메시지가 특히 많이 나타난다는 점을 제외하면, 이 책 자체에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무심사상이 백운의 독특한 사상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그렇지는 않다. 그의

중국 스승이었던 석옥도 무심을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운은 스승의 무심사상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며, 『직지』는 그의 이러한 사상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백운의 중심사상이 무념사상 혹은 무심사상인 점은 잘 알려져 있다. 백운은 특히 당시의 수행자가 화두나 공안에 집착하고 있음을 경계하였다:

많은 이들이 정식으로 헤아려 통발[즉, 방편]을 버리지 못한다..... 자기를 쫓아서 이루려 하기 때문에 마음의 근원을 밝힐 수 없다.

그리고, 백운은 그의 「무심가」(無心歌)에서 선지(禪旨)를 수행하는 사람이면, 승속을 가리지 않고 무심으로 깨달음을 얻을 것을 강조하였다:

어리석은 사람은 경계를 잊으면서도 마음은 잊지 못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잊으면서도 경계는 잊지 못한다. 마음과 경계를 잊으면 스스로 고요해지고, 경계가 고요해지면, 마음도 스스로 고요해지니, 이것을 일러 무심진중이라 한다.

하물며 납자들이라! 그대들은 마땅히 이 말을 따라야 하리라. 하루 종일 몸과 마음에 집착하지 않아 스스로 무심의 상태만 된다면, 자연스럽게 하늘을 덮고, 땅을 덮어[즉, 어디서나], 머무는 곳마다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머무는 곳마다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백운이 당시 유행하던 화두가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또 다른 집착의 대상이 된 선가의 그릇된 선풍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무념 혹은 무심이란 문자 그대로의 실제적인 존재와 대립되는 무(無)로서의 무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眞心), 즉 "잘못된 생각이 없는 마음" 혹은 "존재에 대한 이분법적 생각이 없는 마음"을 뜻한다는 것이다.

2. 수행론

『직지』의 수행론은 어느 특정 방법론만을 강조하지 않은 특징을 보였다. 좌선만을 수행의 전부로 간주하지도 않았으며, 실체로서의 수행에 묶여서도 안되며, 중요한 것은 망념을 없애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백운 스스로도 무심 혹은 무념을 가장 중요시 하였으나, 그는 이 방법만을 주장하지는 않았으며, 수행자가 각자의 근기에 맞도록 가장 알맞은 방법을 찾을 것을 강조하였다. 일례로 몽산은 이근기 수행자에게는 삼매를 통해 지혜를 얻기를 강조한 반면, 대중들에게는 단바라밀, 즉 보시를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백운은 또한, 수행의 정도를 시험하는 방법으로도 무심과 무념법은 최고라고 하였다. 그러나, 『직지』의 편찬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간화선을 부정하지는 않았으며, 그것을 방편으로서 받아들였다:

위로부터의 여러 조사님들이 사람들을 위하여 배푼 방편을 살펴보면..... 혹은 바로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고, 혹은 교묘한 방편을 쓰시기도 하셨으며, 혹은 '마음이 곧 부처다'라고도 하셨으며, 혹은 '마음도 아니며, 부처도 아니다'라고도 말씀하셨다.

이처럼, 『직지』의 수행론은 상당한 융통성을 보여 주고 있다.

3. 계율관·염불관

『직지』의 계율관과 염불관은 이러한 무심 수행을 위한 방편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그 핵심은 진심에 있으며, 형식적 계율 준수나 염불은 배척되고 있다. 백운은 분양의 견해를 인용하여 대중들에게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술과 고기를 차려 제사 지낸 후 먹은 것을 비웃을 것은 못되며, 중요한 것은 진심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백운은 보지의 주장을 인용하여 술과 고기와 오신채(五辛菜)를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러한 계율관은 계금취견(戒禁取見)에 묶이지 말라는 불교의 계율관에 충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지』는 보지의 견해를 인용하여 입으로만 경론을 외워서는 안됨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이 책이 경론의 뜻 파악을 중요시한 것인 동시에, 이 책의 염불관을 피력한 것으로 생각된다. 백운은 그의 무심사상이 극락으로 가기 위한 방법론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는데, 이 점은 그의 염불관이 서방정토에 태어남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

III. 『직지』의 선사상사적 의의

지금까지 살펴 본 『직지』의 선사상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바탕으로 『직지』의 선사상사적 의의를 검토해 보자. 여기서는 『직지』의 중요한 특징으로 생각되는 역사적, 사상사적, 선문헌학적 의의에 대한 분석이 그 내용이 될 것이다.

1. 역사적 의의

『직지』의 역사적 의의는 인쇄문화사적 중요성과 함께, 한국불교의 역사적 역할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양면적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다.

백운이 살던 시대의 국내의 정치, 사회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 고려 중기 이후 의 불교교단은 대토지 소유자로서 지배계층과 공동의 이익관계에 놓여 있었으며, 승려 상층부는 대개 당시의 지배세력 계급 출신으로서 이들은 체제옹호적 입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백운의 시대에도 지속되고 있었으며, 사상적 갈등과 승정질서의 타락 현상도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잦은 왕사와 국사의 변동은 당시 고려의 정치적 현실과도 관련이 있었다. 외적으로는 성리학으로 무장한 신진사류들이 흥기하면서, 고려는 유·불교체기에 들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에 대해 당시의 불교계는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하였다. 한 가지는 신행결사를 중심으로 한 청정승단을 이룩하려 한 내면적 노력이며, 다른 한 가지는 임제선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선법의 도입을 통한 선풍진작이었다. 백운도 후자의 입장을 취한 당시의 대표적 승려였다. 따라서, 백운이 편찬한 『직지』의 역사적 가치도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고찰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국의 선문헌들과는 달리 고려의 『직지』는 정치적 산물은 아니었다. 중국에서 생긴 선종이 당(唐, 618-907)대의 여러 종파 가운데 중심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중화의식이 작용한 결과였으며, 송(宋, 960-1279)대 초에는 불교계의 주류가 되었다. 또한, 송대의 사대부들은 선승을 숭상하면서 서로 교류하였으며, 어록이나 등록의 편찬에도 참여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선승들과는 달리 백운은 국왕이나 관료 등과의 정치적 접촉이나 역할을 즐겨하지 않았으며, 참선에 전념한 선승으로 일관하였다. 결과적으로, 그의 『직지』는 그의 제자들을 위한 교재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이 책의 역사적 가치는 무엇보다도 인쇄문화사적 측면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 가치는 다음 3 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첫째, 고려시대의 금속활자에 대한 문헌상의 기록이 사실로 인정되게 되었다. 둘째, 13 세기 초에 발명된 한국의 금속활자 인쇄술이 고려말까지도 지속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 인쇄문화 전개의 바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세계문화사에 있어서도 『직지』는 창의적이며, 우수한 인쇄문화의 산물이다.

『직지』는 동시에 역사적 한계성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동아시아불교사에 있어서 한국승려들의 활약상을 좁힌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직지』의 주요 내용을 이루는 선어의 대상자들로는 인도의 석가모니의 제자, 대중들, 상인, 승려, 외도 등과 중국의 시인, 대중들, 관리, 황제, 속인 등으로 나타난다. 이들 중, 대부분의 대상자는 중국의 승려들이다. 『직지』는 이전의 중국과 한국에서 편찬된 같은 류의 선적들에 비해 한국 승려들에 대한 기록도 훨씬 적다.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1004)과 『선문염송집』(禪門拈頌集, 1226)은 『직지』에 많이 이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전등사의 완결판으로 간주되는 『경덕전등록』에는 39 명의 한국승려들과 관련된 공안이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에 들어가 활동한 한국 선승들이 중국 선종의 발달 뿐 아니라, 귀국후 한국 선종구산파의 성립과 발달에 기여함으로써 세계불교문화 발전에 그 일익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선문염송집』에는 한국불교와 관련된 23 칙의 공안이 각각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활동한 한국승려들 중 일부만이 수록되어 결과적으로 한국승려들의 활동을 축소시켜 이해하는 결과를 낳았을 뿐 아니라, 중국 선종사를 그만큼 단선화시킴으로써 후학들로 하여금 중국 내지 한국 선종의 흐름을 좁혀 이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직지』의 경우는 이러한 경향이 훨씬 심하다. 『직지』에서 차지하는 국가별 선어 채록량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 다음이 인도가 차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선사로는 유일하게 신라의 대령선사(大領禪師)의 문답만 하권에 1 회 수록되어 있다. 더욱이 한국 선전통의 철학적 기초를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간화선(看話禪)을 처음으로 도입한 선승인 보조국사 지눌과 『선문염송집』의 편찬자인 동시에 한국 간화선의 체계자인 진각국사 혜심(慧諶, 1170-1234)을 비롯한 고려말까지 한국 불교사에서 족적을 남긴 한국 선승들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직지』는 결과적으로 한국불교의 역사적 역할을 거의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성을 갖는다.

2. 사상사적 의의

선가의 일반적인 공안서에서 주석이 붙어 있는 예는 드물다. 그러나, 『직지』에는 이 책의 편찬자인 백운이 특정 선어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부분 20 칙이 있는데, 이는 이 책의 전체 공안 수 282 칙의 1/15 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의 주석들은 특정 공안에 대해 다른 용어로 다시 설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들을 통해 그의 선사상을 살피거나, 『직지』의 선사상적 특징을 파악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찬록들이 석옥의 『직지』와 다른 부분일지도 모른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 정도의 찬록으로는 증보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하권에는 상권보다 그 편집체제 뿐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글이 수록되어 있어 백운선사의 선사상이 하권에 집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 주장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여기서는 고려 후기 선사상사에서의 『직지』의 사상사적 역할, 인용 불전, 지식 대중화의 측면에서 이 책의 사상사적 의의를 검토할 것이다.

(1) 『직지』의 사상사적 역할

『직지』가 편찬·출판된 시기는 14 세기 말이며, 이 당시의 고려 사상계는 불교와 유교의 교체기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이 책의 탄생은 무슨 지성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 『직지』에서 직접 언급된 교서는 『효경』(孝經)이며, 언급된 내용은 효에 대한 강조다. 이것을 제외하면, 『직지』에서 유교 가르침이나, 당시 고려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중국의 성리학(性理學)적 사유체계를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은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직지』의 일차적 역할은 백운의 제자들인 선승들의 교재로서의 역할이었다. 따라서, 이 책이 당시의 지성사적 배경을 반영한 산물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고려 후기의 선사상사에서 『직지』가 가진 중요성은 특히, 무심 강조, 화두에 대한 방편적 이해, 지눌의 돈오점수설 계승, 수행론, 계율론, 염불론에서 나타나며, 이 책의 성격도 기존의 선사들과는 달리 백운의 범통을 반영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특징들은 현대 한국불교계의 현실에 대한 반성적 시각도 제공해 주고 있다.

백운이 『직지』를 통해 강조한 무심사상은 그가 살던 고려 후기의 주류 불교사상과는 구별되며, 이 점은 이 책이 가진 사상사적 의의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백운이 활동한 고려 말은 조사선 중에서도 고려 말기에 태고보우(太古譜愚, 1302-82) 국사와 나옹혜근(懶翁慧勤, 1320-76) 왕사 등에 의하여 임제 정통으로서의 간화선이 일반화되고 있던 시기였다. 그러나, 백운은 문자에 집착하는 것도 병이지만, 간화에 집착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은 병으로 보고 진정한 공부는 무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또한 선교불이관을 제시하면서, 조사선풍과 간화선 수행을 동시에 수용하였다. 태고가 선우위 교열세의 교관 위에 사교입선적 입장을 취한 반면, 백운은 무심선의 관점에서 선교가 근원적으로 둘이 아니라고 간주한 것이다. 또한, 태고가 간화참구로 일관한 반면, 백운은 무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석옥청공은 무심무념을 강조하였으며, 백운의 사상도 그러하지만, 임제정통으로서 석옥청공의 가르침을 이었다는 태고는 조주의 무(無)자 화두로 가르쳤으므로 백운과는 다르다. 이 점은 당시의 선사상사에서 중요하다. 그것은 백운이 당시 유행하던 화두를 통한 선수행을 멀리한 채 무심의 방법을 택하였다는 점은 매우 독특한 사상으로서, 그는 화두를 방편으로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 점은 "간화선 지상주의"적 경향이 강한 현대 한국 승단의 입장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지』의 돈오가 해오를 의미한 점은 현대 한국불교계의 일각에서 돈오돈수(頓悟頓修)설의 입장에 서서 돈오를 증오(證悟)로 해석하면서 촉발된 돈점논쟁 중 돈오점수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백운에게서 나타나는 이러한 선사상적 특징은 1326년 고려에 와 2년 7개월간 머물면서 백운에게도 사상적 영향을 미쳤던 인도의 승려 지공(指空, 提納薄他, Dhyanabhadra)에게서도 나타난다. 지공은 선의 핵심을 무행(無行)에 두면서, 무심, 무생(無生), 무소래(無所來) 등을 강조하였으며, 그 내용은 간화선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직지』의 내용을 통하여는 고려 말에도 지공의 돈오점수설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음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려말의 선사상의 주류를 간화선으로 간주해온 기존 견해는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방정토(西方淨土)설을 부정하면서, 유심정토(唯心淨土)설의 입장에서 있는 『직지』의 염불관은 조선 중기 서산대사(西山大師) 휴정(休靜, 1520-1604)의 사상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대 한국불교계의 현실에서 서방정토설이 더 강조되고 있는 점도 반성적 시각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직지』의 계율관에 따르면, 고기, 술, 오신채도 허용되었는데, 이는 당시의 아시아 불교계의 전통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은 지공의 계율관과도 달랐다. 지공은 무생계(無生戒)를 강조하였으며, 그 내용에는 제사를 모실 때도 고기는 쓰지 않고, 채소만 쓰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고려인들은 이 전통을 철저히 지켜 지킨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또한, 그의 무생계는 고려의 모든 계층에 널리 보급되었을 뿐 아니라, 관인에게까지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따라서, 고려 후기의 계율사상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위해서는 백운과 지공의 계율관에서 나타나는 차이와 그 시대적 영향 등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심층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직지』는 백운이 그의 법통을 강조하기 위해 편찬한 책은 아니다. 『직지』를 전등사서로 보고, 백운이 이 책을 편찬한 이유를 그의 전등사를 주장하거나 법맥을 계승케 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선종의 전등설은 스승과 제자 사이의 전법부촉에 대한 체계적인 계보를 제시하기 위해 생긴 것이다. 전등록은 중국고대로부터 전승된 종법제(宗法制)에 의하여 사회를 구성했던 전통을 반영한 것으로서, 이들 전등사서들은 전등의 계보를 밝혀 자기 종파가 정통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편찬되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조사선의 결집, 과거 7 불, 인도 28 조, 중국 6 조 등으로 혜능이후의 조통을 확립시키고 있다. 『직지』도 이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러나, 『직지』에는 중국의 여러 선종 종파에 속한 승려들의 공안이 기록되어 있으나, 그 중에서도 법안종(法眼宗) 승려들의 공안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백운은 고려말 임제종의 시조가 된 태고보우와 조계선을 다시 일으킨 나옹혜근과 더불어 당시 불교계의 3대 인물로 불리어진 조계종 계통의 승려로서 석옥청공으로부터는 임제종을 전수 받았다. 그러므로, 백운이 『직지』를 자신의 전등사를 강조하기 위해 편찬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직지』를 통해 백운은 자신의 전등의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었던 듯 하다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또한, 법통설에 대한 논의는 현대 한국불교계의 주요 주제 중 하나다. 그러나, 기존의 법통설들은 불교종파들의 이념적 산물일 뿐, 역사적, 논리적 근거를 결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와 관련, 『직지』에 대한 기존의 해석도 반성적 시각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인용 불전의 제한성

직지에서 언급된 불전은 『법화경』, 『열반경』, 『법구경』, 『화엄경』, 『미증유경』, 『능엄경』, 『기신론』 등이다. 따라서, 『직지』에서 언급된 경론은 거의 대부분이 대승불교권에서 강조된 것들로 나타나, 인도의 불전들과 상당 수의 중요한 불교이론서들은 참고되지 않았다. 특히, 『직지』에는 석가모니의 깨달음의 계기, 염화시중의 미소, 분별심 제거를 강조한 공안이 포함되어 있으나,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대한 설명이 상대적으로 상세했던 『선문염송집』 보다는 그의 가르침에 대한 강조는 약했다. 더욱이, 불교의 핵심이론으로서 각각 초기 불교의 인간론, 인식론, 수행론에 해당하는 오온(五蘊)설, 십이처(十二處)설, 팔정도(八正道)설 등에 대한 설명 뿐 아니라, 이후 전개된 아비달마 불교의 이론들과 대승불교철학의 2대 사조 중의 하나인 유식학(唯識學)과 관련된 참고문헌들도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직지』의 대부분의 내용은 선가의 공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공안들도 특정 선사가 자신과 관계 있던 지역의 자연이나 사람, 사물을 소재로 하여 지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직지』의 내용은 중국이라는 특정 지역, 선종이라는 특정 불교종파의 가르침으로 한정지어진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3) 지식 대중화의 한계성

서양의 금속활자본과는 달리, 고려의 『직지』는 지식의 대중화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 금속활자인쇄술은 과거 1000년간 인류가 이룩한 업적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 이유는 지식의 확산 및 보급에 있었다. 한국에서는 삼국시대(57 B.C.E.-660)부터 인쇄술이 시작되었으며, 고려시대 때는 우수한 목판인쇄 문화를 향유하였다.

『초조고려대장경』(初雕高麗大藏經), 『속장경』(續藏經), 『재조고려대장경』(再雕高麗大藏經)이 그 예다. 그리고, 13 세기의 고려는 세계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하였으며, 현존하지 않는 『고금상정례문』(古今詳定禮文, 1234), 『남명천화상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 1239)와 함께, 『직지』는 고려의 대표적 금속활자본들이다. 『직지』는 또한 현재까지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으로 간주되어 온 독일인 쿠텐베르크(Johann Gutenberg)의 『42 행 성서』(The 42-Line Bible, 1455) 보다도 78년 앞선 것이다. 그러나,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금속활자 인쇄술은 유럽 문명의 전개와 산업화의 신호탄이 되어, 종교혁명, 시민혁명, 대학, 민주주의를 탄생시킬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으나, 『직지』는 그렇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 1994년 앨 고어 미국 부통령은 정보고속도로 G7 정상회담 개막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말을 하였다:

한국은 13 세기에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했으나, 그 발명품을 왕실 책자와 불경, 중국의 고전을 간행하는 데만 사용했다. 반면 유럽에서는 구텐베르크가 200년 늦게 금속활자를 만들었으나 학술서적 등 실용적인 책자 인쇄에 활용해 찬란한 서구문명을 꽃피우는 발판으로 삼았다. 현대인들은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를 이야기 하지, 한국의 금속활자를 거론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직지』가 대중을 위한 지식보급에 실패한 이유는 첫째, 유럽의 알파벳과는 달리 『직지』의 기록어인 한자는 그 수가 많아 주조하는데 드는 노력과 비용이 만만치 않았으며, 둘째, 『직지』가 인쇄될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맹이어서 독자층이 한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직지』는 인쇄의 양도 많지 않았으며, 승려용 교육서로서만 사용되었다.

3. 선문헌학적 의의

고려 후기에는 중국과의 교류가 어려워진 상태에서 간화선이 유행하게 되고 선사라 하더라도 스승을 통한 직접 전수 보다는 고승들의 어록을 통해 득도한 예가 많다. 따라서, 선승들도 고승의 계승을 모으거나 교리의 요점을 정리한 책들의 편찬이 유행하게 되었다. 백운의 『직지』는 중국 승 석옥으로부터 받아 온 책을 증보한 것이지만, 이 책도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한 산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존하는 고려판 선적들은 29 종(중국 찬술서 21 종, 고려 찬술서 8 종)

45 판(版)이 있으며, 현존 고려의 선적들은 질적으로도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도 『직지』의 선문헌학적 중요성은 증명된다.

『직지』는 기존의 선문헌들과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공유하고 있다. 동진(東晉, 317-418) 때 편찬된 『달마다라선경』(達摩多羅禪經)이 번역된 이후 수 많은 승전과 어록이 출현하였으며, 당나라 초기 『속고승전』(續高僧傳)의 등장 이후에는 본격적인 선종의 전등사서가 등장하여 7세기 초에서 11세기까지 이어졌다. 『보림전』(寶林傳)은 조사선이 인도 28조사, 중국 6조사의 정당화를 위하여 편찬된 것으로서 조사선의 발전이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선종사서가 되었다. 이 전통은 『조당집』(祖堂集, 952)에도 이어졌으며, 여기서는 과거 7불의 전심계가 부가됨으로써 확고한 조사선 전통이 확립되었다. 특히, 중국의 송대 선종의 특색 중의 하나는 선의 문자화 작업인데, 『조당집』과 『경덕전등록』은 이런 입장에서 편찬된 대표적 선종사서들이다. 『직지』는 이들 중국 선문헌들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그러나, 『직지』는 이들 기존 선문헌들의 영향 아래 편찬되었으며, 이 책의 중요 참고서로서도 기능한 『선문염송집』과는 체제 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불교사상 『선문염송집』의 영향은 컸으며, 특히 고려시대 중기 이후의 불교 사상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책은 그 체제와 구성상에 있어서 『경덕전등록』을 비롯, 널리 알려져 있던 기존 전등서와는 상당히 다른 특징을 보여 주는데, 과거 7불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상대적으로 석가모니불에 대한 언급이 자세한 점은 특히 그러하다. 결국 불법승의 순서에 따른 독특한 배열, 기존의 전등설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하게 내용상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점등이 상당히 특징적인 것으로서, 이와 같은 점들을 골고루 갖춘 예는 다른 전적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직지』의 내용은 시대적으로 앞선 『선문염송』이나 지눌의 저술들보다도 독창성의 정도는 더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맺음말

이 논문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 금속활자본으로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직지』에 나타난 선사상의 내용을 검토·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책의 선사상사적 의의를 살펴보았다. 이 책은 중국의 주요 선문헌들과는 달리, 정치적 산물은 아니었으며, 또한, 당시의 지성사적 배경의 결과물도 아니었다. 그러나, 깨달음에 대한 확신 강조, 무심설 혹은 무념설의 강조, 화두에 대한 방편적 이해, 돈오점수설 계승, 독특한 계율관, 염불관 등은 이 책이 가진 특징적인 사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책이 가진 선문헌사적, 인쇄문화사적 역할도 지대하다. 그러나, 이 책의 내용은 중국이라는 특정 지역, 선종이라는 특정 불교종파의 가르침으로 한정된 사상적 한계성 뿐 아니라, 한국불교의 역사적 역할도 거의 고려하지 못한 역사적 한계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또한, 금속인쇄문화가 인류사에 미친 엄청난 영향에도 불구하고, 『직지』는 당시

승려들의 교재로 편찬되어 그 목적으로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세계사적 중요성도 상대적으로 경감시킨 결과를 가져 왔다.

이제까지의 『직지』 연구는 서지학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포함하여 『직지』의 역사적, 사상적 중요성에 대한 연구들이 더욱 다양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직지』의 찬록자는 백운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백운 스스로는 그가 쓴 발문에서 『직지』의 내용을 일차적으로 선택한 주체는 법린이었으며, 자신도 이 작업을 억지로 하기는 하였으나, 노안 때문에 힘들었던 작업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직지에 대한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직지』의 사실상 찬록자인 법린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백운과 그에게 사상적 영향을 미친 지공의 역할 및 『직지』에서도 나타나는 지눌의 돈오점수설의 영향 등에 비추어 고려말의 선사상의 주류를 간화선으로 간주해온 기존 견해도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백운과 지공의 계율관에서 나타나는 차이와 그 시대적 영향 등에 대한 논의도 앞으로 심층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책이 현대 한국불교계의 수행관, 염불관, 계율관에 던지는 반성적 메시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